3월 22일 수요일 음 2월 1일 (8물)

### 건강&생활

### 기상정보



오전	강수	확률	오후
60%	제	주	60%
60%	성	산	60%
60%	고	산	60%
60%	서	기포 📉	7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흐리고 비 14/17℃

흐림

제주는 흐리고 비가 오겠다. 아침 최 저기온은 13~14℃, 낮 최고기온은 18~ 21℃로 예상된다. 내일까지 제주 전 지역에서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 울테니 빗길 운전에 유의해야겠다.

흐리고 비

	해뜸 06:36 해짐 18:46	달뜸 06:58 달짐 19:25		
물때	만조 11:14 23:27	간조 05:16 17:42		
	<b>남기가능지수</b> 관심	식중독지수   관심		

미세먼지 (PM10)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초미세먼지 (PM2.5)

좋음 | 보통 | 나쁨 |매우 나쁨



모레

### 빅테크 2차 구조조정… 아마존 9000명 해고

10/14°C

## 지난 1월에만 1만8000명 감축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에 이어 세계 최대 전자상거 래 업체 아마존도 추가 해고에 나 섰다. 빅테크(거대 정보기술) 기업 들의 2차 구조조정이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앤디 재시 아마존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메모를 보내 앞으로 몇 주 안에 9000명을 더 해고할 것이 라고 밝혔다.

지난 1월 1만8000명을 감축한 데 이어 2차 구조조정이다.

앞선 1차 구조조정은 리테일 부 문과 기기, 채용, 인사 파트에서 가위이 이르지 거으고 알려졌다



아마존 로고.

우려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으면서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는 모 습이다.

이달 초에는 버지니아주에 추진 한 제2 본사의 2단계 사업을 무기 한 연기했으며, 시애틀과 뉴욕 등 에서 운영해 온 무인 편의점 '아마 존 고'도 8곳의 운영을 중단하기로

아마존의 이번 해고 발표는 14일 메타에 이어 빅테크 기업으로서는

어마존은 지난해부터 경기	•		막대그 기업으도시: 연합뉴:
<b>한 리일보</b> 제주의대표신문		인·인쇄인·편집인 <b>김 건 (</b> 185 제주특별자치도 대표전화 (064)	제주시 서사로 154
인터넷 서비스 http://www.ihalla.com e-mail:hl@ihalla.com			50-2828 / FAX 752-7448 32-5552 / FAX 732-5559

**1989년 4월 22일 창간** / 등록년월일:1988. 12. 5 등록번호: 제주, 가00002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디

서귀포지사 /32-5552 / FAX /32-5559 구독신청·배달 750-2330 기사제보 750-2214 / FAX 752-9790 구 독 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개체수 감소



강 준 혁 한의학 박사

교통사고 환자들을 진료하다 보면 외상은 없는데 육체적 고통을 호소 하는 환자들은 물론이고 정신적인 트라우마로 힘들어하는 환자들이 많다. 얼마 전에 모녀가 소형차를 타고 가는데 25t 트럭이 차선을 변 경하면서 측면 충돌을 했다.

길 한가운데서 차가 빙글빙글 몇 번을 미끄러지면서 위험했지만 다 행히 큰 외상은 없었다. 그럼에도 모녀는 그 순간에 극도의 공포감과 죽음에 직면했다는 정신적 충격으 로 내원을 했다.

## 교통사고 후유증에 대하여…

레이나 CT를 찍었는데 골절이나 외상이 특별히 없으면 2주밖에 진 단 주수가 안 나오고 입원도 할 수 없어서 한의원으로 내원한 케이스 였다. 상담을 해보니 차 안에서 받 은 충격으로 어머니는 목이나 허 리, 무릎에 통증을 호소했고 딸도 마찬가지로 전신통을 호소했는데 그중에서도 정신적인 충격이 극심 했다. 그런데도 그걸 아무도 알아 주지도 않고 인정을 안 해줘서 너 무 힘들다고 호소했다.

자신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겨서 힘든데 단지 외상이 심하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환자로 인정을 못 받고 그냥 거짓으로 꾀병하는 가짜 환자 취급을 받는 게 억울하 다고 눈물까지 흘렸다.

도 않았으면서 병원에 와서 드러눕 현재 제도로는 병원에 가서 엑스 고 입원부터 하는 사기환자들이 종

종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외 상이 없어도 통증도 심하고 거동하 는 데 불편한 교통사고 후유증 환 자들이 많다. 겉으로만 멀쩡하다고 통증이 없는 것이 아닌데 진단주수 가 2주 초과가 안 돼서 2주가 지나 면 다시 진단서를 떼고 보험회사에 보내 치료를 받아야 하는 현실이 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육체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충분히 인식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인정해 주지 않아 환자들이 답답해하고 억울한 것이다.

위에 예를 들었던 환자 중에 어 머니는 연세가 80세가 넘으셨지만 사고 전에는 정신이 또렷하고 일상 생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하지 만 사고 후에는 충격으로 가벼운 보험을 악용해 실제로는 다치지 치매 증상처럼 기억력 장애, 인지 장애가 생겨서 가족들이 걱정을 많 이 하고 힘들어했다.

교통사고 환자들을 보다 보면, 속칭 '나이롱환자'라고 별로 아프 지도 않으면서 보상금을 받으려고 연기하는 환자들도 있겠지만 한의 원까지 와서 아픈 침을 맞고 쓴 약 을 먹으면서까지 연기를 하기는 힘 들 것이다.

과학의 발달로 의료기기 또한 발 전을 해서 사람 몸속을 들여다보고 촬영을 할 수 있게 됐지만 골절이 나 근육 파열 같은 외상이 없이도 얼마든지 타박이나 어혈을 원인으 로 통증이 있을 수 있다. 또한 육체 적인 통증 말고도 정신적으로 힘든 스트레스 증후군도 주의 깊게 생각 을 해야 한다. 보험사기를 벌이는 사기꾼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통 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 들이 오늘도 억울한 취급을 받고 제대로 치료를 못 받는 억울할 일 들이 없어지길 하는 바람이다.

### 열린마당

###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유수율 제고 사업



연합뉴스

손 동 완 K-water 제주지역협력본부장

최근 호남 지역은 가뭄으로 물 이 용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주요 댐의 저수율은 20% 안팎으로 제한 급수까지 거론되는 실정이다. 환경 부에서 추진한 유수율 제고 사업이 아니었다면 여러 지역에서 벌써 제 한급수를 겪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제주도는 기후변화 및 물 부족에 대비해 2016년부터 K-water와 협 력해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을 추 진해 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에 대한 유수율 제고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유수율 제고를 위한 공사에는 수 돗물 단수가 수반되기 때문에 대부

분의 단수 작업은 물 이용에 불편 이 없도록 야간과 새벽 시간에 진 행 중이다. 그러나 공사 여건이나 날씨 등 예기치 못한 사정으로 예 정된 작업 시간이 변경되거나 경우 에 따라 낮 동안에 공사가 진행되 기도 한다. 이 경우 수돗물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 도민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가 절실하다.

또한 유수율 제고 사업은 속도가 관건인데 수돗물이 새는 곳을 빨리 찾아 공사를 신속하게 진행할수록 새는 물을 더 많이 줄일 수 있기 때 문이다. 제주도와 K-water가 진행 하는 누수탐사 외에도 생활환경 주 변에서 발견한 누수신고는 제주도 의 유수율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

22일은 세계 물의 날이다. '함께 만드는 변화, 새로운 기회의 물결 이라는 올해 세계 물의 날의 주제 처럼 제주도민이 함께하는 유수율 제고 사업은 제주도 수돗물 관리의 변화와 새로운 기회의 물결이 될 것이라 기대해 본다.

### 책 읽는 제주



박 정 환 제주도교육청 교육행정과 사무관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요"라고 핑 계를 대지만 그럴 의지가 없을 뿐 이다. 독서는 자기주도적 학습이다. 세계로 나가는 창구다. 내 삶의 미 래를 보여준다. 하지만 현재는 컴 퓨터 게임에 밀려 학생들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데는 역부족이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독서광이 많 다. 다산 정약용은 "아름다운 의복 과 맛있는 음식으로 살아가는 삶도 별것 아니라고 전제하고 독서야말 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본분이다" 라고 했다.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을 남 긴 교보문고 창업주 신용호 회장도 책 읽는 국민이 나라의 미래라고 하였다. 또한 뤼순 감옥에서 짧은 생을 마감한 안중근 의사는 사형 집행 마지막 순간까지 책을 읽었다 고 전해진다.

독서는 삶의 보물이며 진실의 스 승이다. 그럼에도 영상에 익숙해진 학생들은 단문조차 버거워한다. 읽 을 줄 알아도 필요 정보를 확인하 는 것에만 익숙해서 전체적인 의도 와 맥락의 독해력은 낮아졌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양한 독서 미션을 수행해 포인트를 쌓은 학생 들에게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증서 를 제출한 학생의 이름으로 해외 한국학교에 책을 기부하는 '독서마 라톤'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독서는 인생 삶의 알파와 오메가 이다.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우선 서점에서 함께 추억 스토리를 만들어 보자. '드림노트 북'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접해 보 자. 책을 읽는 리더, 어른들의 본보 기만이 '책 읽는 제주'의 답이다.

# **120년의 역사** [ 독 일 수 입 ]



잡초의 경감

PH(산도)교정

토양 곰팡이성 질병의 방제 뿌리혹병의 경감

YouTube 석회질소 검색

마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달팽이추출물 <u>물질</u> 토양의 pH를 맞춰주는 역할, 양분용탈을 방지하고, 100% 수용성 비료 수분 보유력을 올려줌 15-3-5+특수물질8종 Cocoly 염류집적을 개선하며, 비료 흡수율 상승 및 냉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효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얇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Powerful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왁스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고 역할과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키며 심근을 유도하고

효과를 연장시켜줌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용량: 20kg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NAVER Dom 코코리 검색 **농가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밭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제주시 정실동길75(애조로) 오라CC사거리 동쪽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Tel: 745-8900, H.P: 010-9258-7508

2023년 봄출하예정 묘목 분양

### 만감류

레드향, 천혜향(특호), 황금향, 윈터프린스 한라봉, 사라향(천혜향신품종), 탐나는봉, 카라향, 탐빛1호, 댕유자, 아마나스, 레몬, 탱자(1년생 300원, 2년생 400원)

### 조 생

유라조생, 하례조생, 궁천, 오하라배니(궁천변이)

[ 유라, 천혜향, 레드향, 황금향 2년생 본당 1만원 특별분양 선착순]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850-6번지 (평화로 서광주유소에서 모슬포 방향 300M큰도로변)

종자업등록번호: 18-2003-20-09

**대표: 010-2691-1883** (관리자 : 010-9480-1564) 허가번호 18-제주2022-20-03

유 라 조 생 2~3년생 혜 3~5년생 3~5년생 한 라 봉 3~6년생 3~4년생 진 전온주 3년생 하 례 조 생 3년생 봉 3년생 감 윈터프린스 3년생 평 3년생 진 향 刀 3년생 显 1년생

## 한림종묘사

010-8820-5769 종자관리사 010-3690-2453